

6월 21일(월) / 출 21-24

- ▶ **내용요약** : 출애굽기 21장은 중에 관한 법과 폭행에 관한 법, 피해보상에 대한 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지지하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바탕으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인정하신 말씀은 아니다. 22장은 배상에 관한 법, 도둑에 관한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도둑법에 있어서는 우상숭배와 음란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한편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심으로써 긍휼과 자비의 원리를 보여주셨다. 23장은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관한 법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후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가까이 나아오도록 허락하셨고,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 ▶ **질문** :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23장)
- ▶ **생각하기** : 모세 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6월 24일(목) / 출 33-36

- ▶ **내용요약** :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며 회개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셨다.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돌판 둘을 다시 준비하여 시내 산에 올라오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다. 이후 모세는 증거의 두 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 3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 성소를 짓기 위한 예물을 가지고 왔다. 한편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브살렐을 성막 기술자로 세웠다. 한편 36장에서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너무 많아서 작업을 하기에 충분했기에, 모세가 예물 가져오기를 금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 ▶ **질문** : 하나님께 성막 기술자로 지명된 사람은? (35장)
- ▶ **생각하기** : 하나님께는 언제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교회의 리더들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린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또한 물질이 필요 이상으로 넘쳐서 축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6월 27일(일) / 레 13-15

- ▶ **내용요약** : 레위기 13장에도 정결하게 하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먼저 본문에는 피부 등에 생긴 나병에 대한 진찰과 정결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주도적이었다. 제사장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나병을 진찰할 뿐 아니라 정결예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했다. 또한 나병환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다. 이어 14장에는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진영 밖에서 진찰을 하여 그 환자가 다 나았으면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했다.

6월 22일(화) / 출 25-28

- ▶ **내용요약** : 출애굽기 25장은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셨다. 한편 증거궤와 진설병 및 등잔대와 성소의 기구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26장에는 성막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재료와 그 규격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하심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다. 27장에는 제단과 성막의 뜰, 그리고 등불을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특히 등불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다.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법과 그 의미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 **질문** : 등불은 누가 관리하도록 명령하셨나? (27장)
-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만드는 방법과 재료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만큼 성소의 의미가 컸기 때문이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정교하게 만드신 성전임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6월 25일(금) / 레 7-9

- ▶ **내용요약** : 레위기 7장은 속건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와 기름을 금하셨으며,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정해진 규례에 따라 위임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다. 한편 9장에는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제사법을 철저히 지켜왔다. 이후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나와 백성에게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 ▶ **질문** : 아래의 빈 칸을 채우시오. (7장)  
“무슨 ( )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함을 기억하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벽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위해 늘 힘쓰고 애써야 한다.

한편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한 규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유출을 한 경우, 정결해지기 위해 이레를 쉰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했다. 그리고 번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려야 했다. 만약 여인이 유출하였는데 그것이 피 이면 이레 동안 불결했으며, 그를 만지는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었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했으며,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쉰 후에야 정결해질 수 있었다. 이때에도 그는 번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했다.

6월 23일(수) / 출 29-32

- ▶ **내용요약** :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절차와 방법을 모세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위임식을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또한 30장에는 분향할 제단과 회막 봉사에 쓰는 속건, 놋 물두멍과 거룩한 향기름, 거룩한 향 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의 기구를 만들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이 작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브살렐을 지명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친히 쓰신 돌판 두 개를 주셨다. 그러나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이것을 본 모세는 돌판을 던져 깨뜨린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였다.
- ▶ **질문** :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은? (32장)
- ▶ **생각하기** :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됨을 기억하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6월 26일(토) / 레 10-12

- ▶ **내용요약** : 레위기 10장에는 다소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에 모세는 아론을 책망하면서 그의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직분을 이어서 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11장에는 정결케 하는 규례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특별히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먹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12장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출산 후 정결해지기 위한 규례와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 ▶ **질문** :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은? (10장)
-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임의대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방종과 방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나타남을 기억해야 한다.

- ▶ **질문** : 나병이 들었을 때, 그는 누구에게로 가야 했는가? (13장)
-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의 전염병과 유출병 환자 등에 대한 격리치임을 내려주셨다. 이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광야 한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자.